

# 이긴자 일대기 [5]

## 출생기

조희성 주님은 일곱 살 때 하나님으로부터 흰돌 하나를 받았는데, 그 흰돌 위에 素砂라는 문양이 그려져 있었던 것입니다. 처음에는 그 문양이 무엇을 뜻하는지 몰랐는데 나중에 서당에서 한문공부를 하면서 '소사(素砂)'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좀 더 지났을 때에는 부친에 소사라는 곳이 있다는 것을 알고 한번 직접 찾아가보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성경 요한계시록 2장 17절에 "이기는 자에게 감췌던 만나를 주고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쓴 이름이 있으니 받는 자밖에는 알 사람이 없다."라고 하였습니다. 주님께서 오십 살(1980년)에 이긴자가 되었고 환갑이 되는 해 1991년도 소사(素砂)에 백만제단이 되는 승리제단 건축 완공 시점에 맞추어 <흰 돌 위에 쓴 이름이 素砂(소사)>라고 예배에 참석한 성도들에게 최초로 공개하였습니다.

## 10대 시절

주님은 굶주린 시대, 일제 강점기(1931년)에 태어나, 어려서부터 굶주림과 싸워야 하는 연단을 겪었습니다. 죽도 겨우 먹는 보릿고개 시절에 부모님이나 동생들이 좀 더 배부를 수 있도록 배고픔을 달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여, 집에 와서는 큰 집에서 밥을 먹고 왔다고 말하여 자신에게 오는 죽을 양보하였습니다. 너무 배가고파 잠이 안 오는 고로 밤늦게 살며시 일어나 부엌에서 물 한 대접을 꿀꺽 마셔도 마실 그때뿐이고 오줌 한 번 누면 이내 불룩한 물배가 꺼졌습니다. 그래서 뒷산에 올라가서 소나무 껍질을 벗겨 송기를 먹고 심어를 꺾어 먹으며 배고픔을 달랬던 것입니다. 너무 굶주림에 시달린 고로 어

려서는 뼈만 앙상하게 남은 몸이었습니

다. 그 당시에 큰집은 좀 잘 살았던 고로 가끔 할아버지는 특별히 주님을 불러가지고 밥을 먹이곤 했습니다. 할아버지는 "우리 희성(熙星)이가 장차 큰일을 할 골상을 지녔어. 손에는 임금 왕(王)자의 손금이 있고, 가슴에는 북두칠성에 해당하는 점이 있으니 큰 인물이 될 것이 틀림없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시면서 "이 손금을 누구에게도 보여서는 안 된다."고 당부하시며 너무나 주님을 사랑해 주시고 귀여워해 주셨습니다.

할아버지는 이미 주님이 다섯 여섯살 되던 때부터 손금을 남에게 보이지 못하게 할 요양으로 "사내는 주먹을 꼭 쥐고 다녀야 된다."고 말씀하시며 어려서부터 주먹을 꼭 쥐고 다니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더운 여름철에는 긴 런닝셔츠를 꼭 입히셨습니다. 주님이 더워서 할아버지 몰래 런닝셔츠를 벗어 던지고 알몸으로 다니면, 멀리서 지켜보시던 할아버지가 달려오셔서 "이 놈! 할아버지가 런닝셔츠 입고 다니라고 그랬지?" 하시며 긴 곰방대로 장판지를 때렸습니다. 할아버지는 주님이 혹 해를 당할까봐 염려되어 이처럼 손금과 북두칠성 점을 숨기게 하셨던 것입니다.

## 20대 시절

조희성 주님은 중학교에 진학하면서부터 고학을 하게 되었습니다. 고등학교 때는 성냥과 비누를 팔면서 고학을 했는데 이발소 등이 단골로 생기면서 돈이 모이니 고향의 친구들 중 학업을 계속하지 못한 친구 셋을 서울에 올라오게 하였습니

다. 여유가 돼 삼보 주식회사(당시 대만에 서 설탕을 수입하던 회사)에 주식을 투자하여 주주(株主)가 되기도 하였습니다.

그 후 6·25사변이 터졌습니다. 북괴군이 점령한 가운데 조희성 주님은 '죽음이 무섭다 해서 일요일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섭섭하게 생각하실까? 목사·장로들이 모두 피난을 가고 있으니, 나라도 종을 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 한다'는 마음이 굳어진 고로 인민군들이 총으로 쏘아 죽일 것을 뻔히 알면서 교회 종을 치고 예배인도를 했던 것입니다.

공산군이 믿는 바는 신이 없다는 것이므로 예배인도 하는 주님을 가만히 돌리게 할 요양으로 "사내는 주먹을 꼭 쥐고 다녀야 된다."고 말씀하시며 어려서부터 주먹을 꼭 쥐고 다니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더운 여름철에는 긴 런닝셔츠를 꼭 입히셨습니다. 주님이 더워서 할아버지 몰래 런닝셔츠를 벗어 던지고 알몸으로 다니면, 멀리서 지켜보시던 할아버지가 달려오셔서 "이 놈! 할아버지가 런닝셔츠 입고 다니라고 그랬지?" 하시며 긴 곰방대로 장판지를 때렸습니다. 할아버지는 주님이 혹 해를 당할까봐 염려되어 이처럼 손금과 북두칠성 점을 숨기게 하셨던 것입니다.

유행가 가사 그대로 조희성 주님은 철사줄에 두 손 팽공뿔인 채로 맨발로 절며 절며 미아리 고개를 넘었습니다. 계속해서 의정부, 동두천, 전곡, 연천, 철원, 평강을 거쳐 신고산을 돌아 원산까지 끌려갔던 것입니다. 끌려가는 사람들이 모두 고문을 많이 당했기 때문에 걸음을 제대로 걷지 못하므로 하루밤에 10리 정도 가면 먼동이 트면서 날이 밝아왔습니다. 그 때 문에 원산까지 가는 동안 무려 한 달이 걸

렸습니다. 기운이 빠진 상태에서 억지로 걷다보니 쓰러지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때마다 한 줄로 묶인 채 행진하던 걸음은 멈출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 사람 때문에 갈 수 없다고 쓰러진 사람을 풀어서 총으로 쏘 죽이고 살아남은 사람들만 또 끌고 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북으로 끌고 가는 중에도 쌀 한 톨, 물 한 모금을 주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너무나 배가 고파 풀을 뜯어 먹었습니다. 눈두렁을 지날 때 물을 마시려 옆 드리면 총개머리로 머리를 때려 죽사하게 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무서워서 눈두렁을 지나기도 물을 먹을 수가 없는 고로 색깔조차 텅텅하게 나오는 오줌을 받아서 먹기도 했습니다. 그 오줌이 짠 것이 아니고 오히려 달았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굶어본 자가 아니면 그 사정과 고통을 아는 자가 없으며, 고통을 겪어본 자가 아니면 알아듣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원산으로 끌려가서 탈출을 하여 남쪽으로 뛴다는 것이 잘못하여 북쪽으로 뛰는 바람에 고원군 탄광 역전에서 다시 붙들리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너무 잔인하게 고문하는 것입니다. 한 달 동안 먹지 못해 뼈만 남은 몸을 발가벗겨서 거꾸로 매달고는 몽둥이로 사정없이 때리며 코에 고추가루 탄 물을 집어넣습니다. 한 달 이상을 밥을 굶어 빈사상태의 몸에 죽을 때까지 매를 맞는 고문을 당하면서도 그 죽음의 경지를 감당해 내야만 했습니다.

모진 고문을 당한 후 평양(신양리 형무소)까지 끌려가 주님은 서포 뒷동산에서 총살까지 당했습니다. 그러나 총알이 칼라를 스치고 지나감으로 기적적으로 살아 나오게 되었습니다. 기절했다가 몇 시간 만에 깨어난 후 불빛을 찾아가 집이 우연

히도 목사 집이어서 주님은 그 집 토굴에 숨어 있다가 평양 수복을 맞았습니다.

수복 당시 20세 나이로 치안 대장을 역임하여 수천 명의 공산당을 생포하고 평양지역의 공산당을 소탕하는 데 앞장을 섰던 것입니다. 그러나 조희성 주님은 포로들을 한 명도 죽이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들도 역시 우리와 한 피요 한 민족이 되기를 품고 불타는 복수심으로써 오히려 미군 측에 주님을 적색분자로 모함을 해 체포하게 했던 것입니다.

그러하여 또다시 끌려 들어가 3년간의 억울한 수용소 생활로 이어졌는데, 치안 대장 출신이라는 것을 아는 공산당원들에 의해 갖은 폭행과 고문·박해를 당했습니다. 수차례에 걸친 살해를 기도당했으나 그 죽음의 고비에서도 용케 피하게 되어 좌절하지 않고 결국은 포로수용소를 탈출하는 데 성공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주님은 혼자서 석방

으로 만족할 수는 없었던 것입니다. 주님과 비슷한 처지에 놓여 있는 수많은 반공 포로들을 구출하기 위하여 다시 수용소로 들어가 거기서 반공혁명을 일으켰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당시 거제도 제61 수용소를 반공포로들이 장악하게 되었으며, 공산분자들은 수용소 안의 감옥에 수용시킴으로써 반공포로들은 죽음의 위협에서 해방되게 한 것입니다. 그 후에도 거제도 63·64 수용소 역시 반공 청년들을 연합하여 주도권을 잡았던 것입니다. 나아가서 "포로 아닌 포로들을 석방하라!"라는 헬서를 써서 당시 국회를 비롯하여 승만 대통령에게도 보내고, UN(유엔) 측에도 전달하여 드디어 중립국 감시위원단의 심사 아래 반공포로들이 석방될 때 제1호로 주님이 석방되기도 하였습니다. 육군본부에서는 이러한 경험담을 <철조망을 넘어서>라는 영화로 제작하기도 하였습니다. 그 뒤 1963년 주님은 육군에 입대하여 11년간의 장교생활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 대동군 치안대장을 역임한 조희성님이 거제도 포로 수용소에서 1952년 중반에 영천 수용소로 이동 후 석방된 증거 자료

남한 출신 포로 가운데 전쟁 중 강제 징집된 의용군이나 북한에서 치안대로 활동하였거나 혹은 피난민 가운데 미군이 포로로 처리해 수용생활을 했던 민간인 억류자 의 규모와 처리에 대한 자료는 당시 언론이나 포로수용소에 수용되었다가 석방된 사람들의 회고록(『동아일보, 1960. 11. 15-16; 홍성식, 『기생길 길을 헤치고』, 국제출판사, 1984.) 등이 있다. 1950년 11월 중순 이들의 석방명단을 발표하였으나, 그들의 석방은 1952년에서야 이루어졌다. 부산지구 포로심사위원회에서 '사상포로'에 대한 심의를 통해서 민간인 억류자를 석방하도록 하였다. 그

러나 그 관련 문서는 거의 남아있지 않았다. 1952년 7월, 이 위원회의 위원장이었던 임대순 대령에게 그 공로를 인정하여 태극은성무공훈장을 수여하였다는 공격서가 남아 있었다.(註: 『공적서철』, 군번 사료 304.) 이 가운데에는 서해안에서 미군 통제 아래 유격대 활동을 하다가 미군 장교와의 갈등으로 포로로 처리되어 수용된 구월산 대원도 있었다. 이들은 1년 남짓 수용되었다가 1952년 중반에 결국 석방되었다.(註: 구월산유격부대 전우회, 『구월산유격부대사』, 2002, 107-113쪽.) 출처: 한국전쟁 포로 관련 자료 연구와 해체

## 상단에 이어서



▲ 위의 사진에서 조희성님은 단기 4285년(서기 1962년) 10월 4일에 양복을 입은 모습이다. 3년간의 포로생활을 마치고 그리운 고향(故鄉)에서 촬영한 것이다.

## 30대 ~ 50대 시절

조희성 주님이 열흘씩 금식기도하는 것은 보통이요, 열흘씩 잠을 안자고 철야하는 것도 거의 평생동안 하셨습니다. 이런 가운데 30일씩 금식기도를 14번을 하였습니다. 기도 기간 중 한 번도 물을 마신 적이 없습니다. 물도 양식인고로 물을 마시면서 하는 금식기도는 완전한 금식기도가 아닙니다. 그래서 물도 마시지 않고 10일 이상 금식기도를 한다는 것은 의학적으로나 생리학적으로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물 한 모금 마시

# 이긴자 일대기

지 않는 가운데 완전한 생명을 걸고 하나님께만 고도로 집중된 상태에서 30일씩 금식기도를 14번 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불가능한 인체조건 속에서 자기완성을 위해 고도로 투쟁했던 사람은 유사이래 주님밖에 없었습니다. 마지막에는 유리병을 깨뜨려 퍼놓고 반바지를 입고 날카로운 유리 위에 정강이를 내놓고 무릎을 꿇고 앉아 30일간 금식기도를 했던 것입니다. 아마도 피가 계속 흘렀다면 죽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피는 응고력이 있는고로 좀 흐르다가 멈추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자칫 움직이면 또 베어져 피가 흐르는고로 조금도 움직이지 않아야, 그야말로 바늘끝만치도 안 움직여야 생명이 보존되는 것입니다. 이런 기막힌 상황 속에서 오직 하나님께만 향하고 고도로 사모하는, 생명 전체를 하나님께 온전히 맡긴 속에서 이긴 피로 화했던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완전히 이겼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온전히 내 속에 좌정하시어 맡아 주장하시는 능력의 피로, 온 세상 마귀를 완전히 지리멸렬시킬 수 있는 이긴 피로 화했던 것입니다.

주님이 밤잠을 안자고 기도하는 것을 직접 본 사람이 승리제단 안에 있는 것입니다. 산 증인들이 있는 것입니다. 마귀는 주님을 넘어뜨리고 백방으로 공격을 하였던 것입니다.

마귀의 간교한 계략에 수천 수 만번 넘어지면서 또 일어 서고 수없이 참패를 당하면서도 또 도전하고 하여 결국 수억만 가지의 마귀의 계략과 죄짓지 않는 비결을 터득하여 마지막에 다 이긴 것입니다. 어떠한 마귀의 공격도 다 이길 수 있는 무적장수가 된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이긴자인 것입니다. 마귀가 갖가지로 유혹하는 가운데 사람을 통한 음란 마귀의 시험도 많았지만 마음 한끝도 추호도 흔들림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음으로 죄를 짓지 않는 선은 이미 넘어섰기 때

문에 그 위의 단계 것을 가지고 도전했던 것입니다. 고도로 하나님을 사모하는 가운데 그 사모하는 생각이 일초 전보다 일초 후가 그 사모하는 도수가 점점 더 고도로 상승되어야 하는 그런 기막힌 율법을 지키고 선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좌정을 안 하려야 안 하실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좌정하시어 조희성이를 죽이고 점령을 하신고로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조희성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이 승리제단에는 매일 이슬성성이 쏟아져 내립니다.

이긴자께서 우리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이제 승리제단 식구들은 이긴자가 걸어온 발자취를 따라가는 것이 그것이 영생의 길입니다. 영원무궁토록 기쁨 속에서 사는 비결이기도 합니다. 완전히 이루어지면 성도들이 심판관을 가지고 세계 만민을 심판하는 그 날, 그 영광은 죽히 비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한꺼번에는 안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속의 자기의 가장 못된 성품은 자기가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자신속의 최고의 마귀입니다. 최고의 마귀를 쫓아야 됩니다. 그것을 위해서 싸워야만 됩니다. 음란마귀, 헬기마귀, 교만마귀 등등 자신 속의 대장마귀를 본인들이 아는 것입니다. 제일 힘든 것은 대장마귀를 쫓는 것입니다. 하나하나 마귀를 이기고 난 다음엔 두 번째 마귀를 쫓고 그다음부터는 쉬운 것입니다. 이것이 소위 마음의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마음의 싸움이 없는 자, 자기 완성을 위해서 힘쓰고 애쓰지 않는 자는 마귀 종자요, 구원과는 상관이 없는 자입니다. 초초로 항상 마음의 싸움이 있는 자 어떠한 마귀의 유혹에도 결단코 흔들림이 없는 것입니다. 매일 매일을 명청하게 헛되이 흘려보내서는 안됩니다. 여러분들 이 순간부터는 마음의 싸움을 시작해야만 합니다. 자기 속에 있는 대장마귀가 자꾸 넘어뜨리게 하는데 그걸 이기면 승승장구로 그다음은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얼마 안가면 의인이 되고 완전히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그다음부터는 행복하게 되어 있습니다. 맛있는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그다음부터는 하나님이 함께하시기 때문에 외롭지가 않습니다"\*

## 누구나 쉽게 공부할 수 있는 기초 전도 영어

성경은 사람은 누구나 다 하나님의 자식으로서 사람이 곧 하나님이라고 밝혀 놓았다  
The Bible reveals that all people are children of God and that people are God

너희들은 신(하나님)들이며 다 지존자의 아들들이다(시편 82:6)  
You are gods, you are all sons of the Most High (Psalm 82:6)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요일 3:2)  
We are now children of God (1 John 3:2)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와 자녀라(신명기 14:1)  
You are children of the Lord your God (Deuteronomy 14:1)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는 노(고린도전서 3:16)  
Do you not know that you are the temple of God and that the Holy Spirit of God dwells in you? (1 Corinthians 3:16)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로마서 8:14)  
For as many as are led by the Spirit of God, they are sons of God (Romans 8:14)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로마서 8:16)  
The Holy Spirit himself testifies with our spirit that we are children of God (Romans 8:16)

내가 너희들을 신들이라 하지 않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은 신들이라 하셨거든(요한복음 10:35)  
Did I not call you gods? Those to whom the word of God was spoken were gods (John 10:35)\*

by Alice